

불법을 생활에 응용해 실행하는것이 '호법활동'

주제:여래의 사자(使者)를 만나다 4

일시:11월 17일

장소:광주동구KT문화센터

강사: 지홍 스님(서울 불광사 회주)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 불광사에 있는 지홍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해야 할 이야기 주제는 '아름다운 불광공동체'입니다. 불광(佛光)을 여러분들은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 잠실에 불광사라는 사찰이 있는데, 좀 특별한 절입니다. 오늘 여기에서는 불광 창립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고 불광운동을 전개하는 과정과 불광의 미래를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불광은 1974년도에 '불광회'라는 명칭으로 창립이 됩니다.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70년대라고 하면 6.25 한국전쟁의 폐해를 겪고 이승만 독재와 4.19 혁명, 5.16 군사 쿠데타와 군부독재, 그리고 유신체제로 이어지는 한국사의 격랑의 한 복판에서 민초들이 방황과 분노와 좌절을 겪은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한 격랑을 겪은 시대가기 때문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불교 교단의 측면에서 보면 54년도부터 시작되어 10여년을 끌던 중단정화의 광풍이 지나간 후, 정화의 정착과 교단정치 안정이 기대되는 그러한 시기가 70년대입니다. 이 정화가 어느 정도 끝나고 조계종의 체계가 세워지면서 중단 정치가 안정이 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중앙 종단은 권력과 각 사찰의 이권을 둘러싼 분규와 소송이 끊어지지 않아 교단의 혼란과 위신이 사회적으로 날로 추락하는 상황이었습다.

그러니까 불교사적으로 보면 조선시대 500년간의 배불정책 하에 불교가 탄압을 받고, 구한말 이후 1970년대까지도 계속적으로 서구 외세에 의해서 전통문화나 전통종교가 계속적으로 우리 사회의 변방으로 밀려가는 상황이었습다. 반면, 다른 종교들은 외세의 힘을 입어서 정치, 교육, 복지 그리고 신앙적으로 교세를 확장해 나가고 있었습다.

이에 비해 불교는 대내외적으로 많은 고통을 앓는 시기였습다. 신앙적으로 볼 때 당시의 신앙형태는 기복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무속화가 되어가면서, 절에 가면 스님들이 점이나 사주관상을 보고, 또 굿을 하는 것이 일반 사회의 불교에 대한 인식이었습다. 불교가 수행을 하고,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사회적 역할을 통해서 사회를 정화시키고 선도하며 우리 사회의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 종교적 역할을 하는 불교의 모습이 아니라, 기복적이고 무속화 되어 불교 전체가 대중화 되지 못하고 개인화 되고 있었습다. 또 사찰이 시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산 속에 위치해



지홍 스님.

있어서 대중과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다.

이와 달리, 다른 종교들은 6.25 전쟁이후부터 피해된 사회에서 사회복지와 교육을 통해 일반인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고,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투자를 하였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그런 고민을 할 때 우리는 그 반대의 길을 걸었다고는 것인습다.

그러한 시기에 저의 은사스님인 광덕 스님께서 불광을 창립하셨습니다. 광덕 스님께서서는 그 당시 불교 상황과 사회현상을 보고 "불교가 이렇게 가다가는 이 사회에서 존재 자체가 없어지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다. 또 "불교가 없어지면 우리 민족 문화나 전통문화 이런 것들이 전부 서구화 되고 기독교화 되는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스님은 그 후 종단 정치에 손을 떼고 불광회를 창립하셨습니다. 불광회, 즉 불광법회라고 하는 단체를 만든 것인습다.

제일 처음에는 월간 <불광>을 창간해 문서포교로 출발 하였습니다. 월간 <불광>을 통해서 전국의 불자들이 대상으로 새로운 불교운동의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것이 당시의 목표였습다. 당시 창간한 월간 <불광>이 이번 달로 421호가 되었습다. 창간을 해

1974년 불광회 창립... 문서포교와 '순수불교운동'

불교의식 한글화부터... 법등 모연해 불광사 창건

서 전국의 불자들에게 배포를 했는데, 제일 많이 배포한 곳이 군부대입니다. 군부대, 교도소 등 집단적으로 생활하는 그런 곳에 월간 <불광>을 많이 보냈습다. 군인들이 그 당시 가장 불교와 접할 수 있는 쉬운 통로가 월간 <불광>이었습다.

월간 불광을 창간하게 되면서 창간사에 '순수불교 선언'을 하게 됩니다. 당시 불교가 피폐해지고 불교 본래의 사회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불교가 계속적으로 이런 다름을 하는 등 나라로 빠져갈 때, 불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통문화가 망한다고 하는 그러한 위기의식 속에서 '순수불교운동'을 선언하게 된 것인습다. 순수불교운동은 무엇이나 하면 본래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에게 가르쳤던 그 가르침으로 돌아가자는 것인습다. 본래의 가르침은 "우리 중생들은 모두가 다 본래 부처다"라는 것인습다.

은사스님은 1974년 9월에 월간 <불광>을 창간하고, 같은 해 10월에 불광법회를 창립하셨습니다. 목요일에 직장인들이 퇴근 후 서울 종로 대각사에서 모여

서 법회를 보게 됩니다. 매주 목요일 보게 되니까 정기적인 법회가 되는 것이죠. 그 때 당시 조계사, 봉은사 같은 큰 사찰도 주간 정기법회를 보지 않고 음력으로 제일법회나 보는 상태였습다. 주간법회는 물론이고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야간법회를 본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다.

그런데 월간 <불광>을 창간하고, 그 구독자를 대상으로 해서 법회를 보는데 처음에는 20~30명 모여서 법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다가 1주, 2주, 3주 그렇게 지나다 보니 20~30명, 100명, 200명, 300명 등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다. 수백 명이 계속 밀려들기 시작할 때 드디어 조직화를 시작하셨습니다.

지역별로 조직화를 하는데 서울시 각 구의 각 동별로 '법등'이라는 조직을 하였습니다. 한 법등에 15명 이상이 모여야 조직을 구성할 수 있었습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종로구라고 하면, 종로구 각 동에 15명 이상이 모여서 법등을 조직합니다. 구 별로 법등을 묶어 세운 것이 '구 법회'라고 합니다.

이때의 법등 활동 내용은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자체 법회를 가정법회 형태로 하는 것인습다. 법우들이 가정을 돌아가면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때 스

님들이 나가서 모임을 주관하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또 법등 가족끼리의 유대와 애경사를 서로 돕는 일부터 시작해서 같이 공부하고, 기도를 하고, 순례 및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습다.

법등별로 한 달에 한 번씩 법회를 하고, 이 법등들이 모여 구법회를 형성하고, 구법회가 모여 불광법회가 되는 것인습다. 가장 기초가 되는 법등을 약 250개 정도 조직하셨습니다. 수천 명의 불자가 조직되니까 여러 가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정기적으로 법회를 보는 것, 정기적으로 조직활동을 하는 것, 정기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 그리고 불교의식을 현대화 대중화 사회화 하는 것 등을 목표로 해서 법등 활동들이 진행이 되었습다.

그래서 당시 제일 먼저 불교 의식의 한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천수경, 반야심경, 축원문, 불공의식, 제사의식을 전부 다 한글로 번역해서 법회 진행을 하였고, 지금까지도 불교의식은 한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 대각사라고 하는 공간이 좁아졌습니다. 공간이 협소해지니 새로운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이런 연유로 현재 불광사 창건을 위한 불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법등에서 전부 모연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법등 가족 전체가 모연문을 들고 시장에 나가서 굵이나 다양한 것들을 팔아 이익금을 불사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당시 모연 방식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다양한 방식으로 했어요. 가장 어렵게 했던 것이 시장에 가서 탁발을 한 것인습다. 스님들이 탁발을 한 것이 아니라 법등 신도들이 가서 탁발을 했어요. 그래서 저녁에 퇴근하고 나와서 시장에 나가 탁발을 하게 되는데 많이 모여야 몇 만원 했습니다. 그런 돈들을 다 모아서 지금의 잠실에 땅을 사고 불광사를 짓게 되었습다.

이 불광사를 짓게 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사찰 창건을 하는 과정을 보면 어떤 목지가 돈을 대고 사찰을 창건하든지, 아니면 어느 사찰이 말사 형식 또는 포교당 형식으로 사찰을 창건 하든지, 또 어떤 스님이 오랫동안 역량을 모아서 그것을 기반해서 사찰을 창건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사찰 창건의 일반적인 과정인습다. 그런데 불광사는 그렇게 창건하지 않았다는 것인습다. 수많은 신도들이 자신들의 수행과 불교활동을 할 수 있는 근본도량이 필요해서 자발적으로 나섰다. 그리고 본인들이 그것을 다 이룩했다는 것인습다. 이런 방식으로 절을 짓게 되면 신도들이 사찰의 주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후 정기적인 법회를 정착시킵니다. 불광법회는 한국불교에 있어서 도심 포교의 큰 역할을 하나 돌씩 하나하게 되었습다. 불광법회가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자 이에 자극을 받아 많은 스님들이 서울을 비롯한 도심에서 포교당을 하나씩 하나씩 짓게 됩니다. 첫 번째 사세가 구룡사이고 이어서 강남포교원, 여의도포교원, 능인선원, 한마음선원, 은평포교원 등이 설립되어집니다.

당시 많은 분들이 불광사를 벤치마킹

업장소멸 법률탐대 (윤장대) 사찰경제 살려!!!

불교 엑스포 [해운대 백스코, 12월3일 ~ 6일]에서 사찰경제 살리는 법률탐대를 돌려보세요!

매일매일 경전을 읽는 공덕 업장이 소멸하는 법률탐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양쪽 법률탐대 1080분의 부처님이 봉안되어 가족 이름은 물론 경전을 복사하는 행사가 줄을 이어가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 전생록에 기록된 금강경을 각 개인마다 다른 숫자로 법률탐대에 복사하게 되어 전생에 묵은 빛, 해탈이 복전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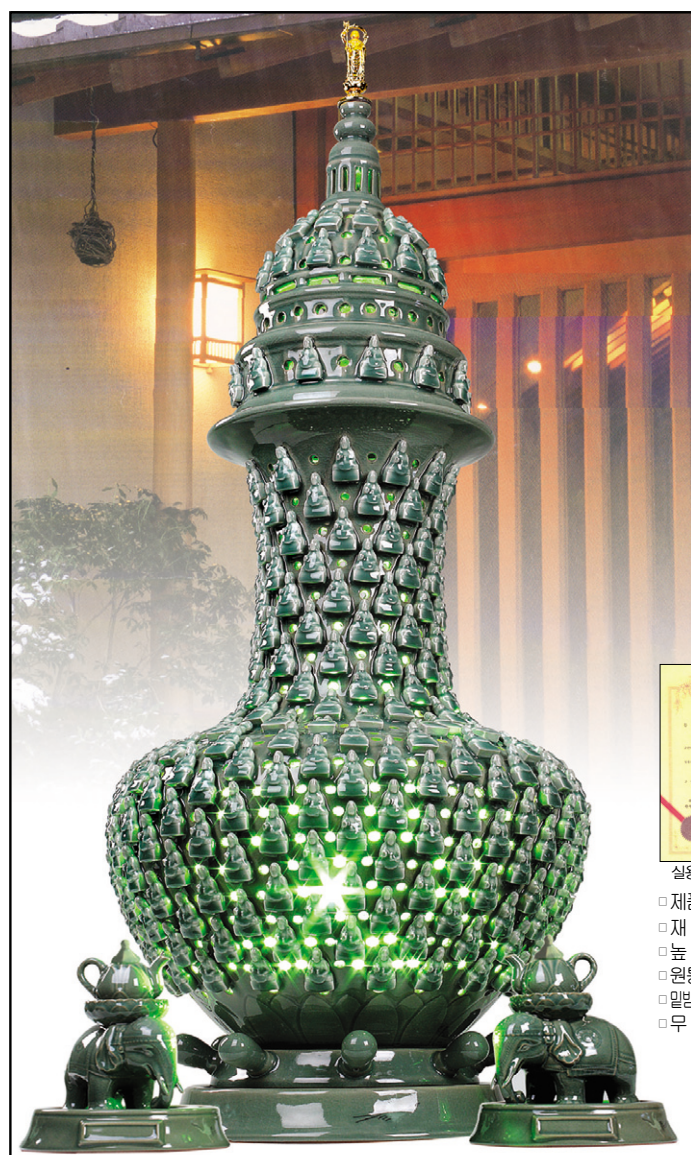
▶ 법률탐대의 특징

1. 대한민국 수제명품으로 불교문화의 예술성이 뛰어난 우리나라 초유의 상감청자 법률탐대로 탄생하였습니다.
2. 전기로 걱정 없이 에메랄드 빛이 나는 10w 전구 하나로 조명되어 법당 장엄은 물론 사찰경제 지킴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3. 도량에 따라 (관음, 지장, 약사여래 등) 천불 및 만불전 법률탐대로 조성할 수 있습니다.

문의 **덕유산 청다향** 055)941-1083 / 010-4595-0017
생산지: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령리 1156-4 달마사

법률탐대 예약 대축제

전시장에 직접 방문하시는 분들께 연중 4회(정월, 불축, 백중, 동지)로 나누어 지원하시는 혜택을 드립니다



심상신안특허의 기술
▶ 제품명: 순금전불봉안법률탐대
▶ 재질: 대한민국 상감청자
▶ 높이: 110cm
▶ 원통폭: 45cm
▶ 밑받침폭: 30cm
▶ 무게: 25kg